제발 오버하지만 말자

(에스겔 5:1~17)

5.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6.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9.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10.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제발 오버하지만 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발 오버하지만 말자'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다보면 자신의 신앙상태를 가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진단방법을 모르고 또 신앙을 진단해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몸으로 접하는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만을 문제시 할 뿐 신앙을 문제시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적인 요인만을 문제시하고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신앙이 아닙니다.

주기도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5절의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외식하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좋아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마땅히 마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좋아하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첫 구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진 문제는 삶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삶에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애초에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문제로써 여겨지지를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민이 이방인들보다 세상 문제에 대해 더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것을 '요란함'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란하다는 것은 흔히 말해 오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오버하다는 말은 영어로 오버두(overdo)를 줄여서 한국어로 표기한 말입니다. 오버두는 "…을 지나치게 하다, 무리하게 하다, 도를 넘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에 지나치게 놀라거나 지나치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선민은 이렇게 요란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요란함은 신앙을 측정하는 기준도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 일로 인해 오버하고 요란을 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신앙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버하며 요란을 떨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곧 영적으로 나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원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인정한다면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못 박힌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오버하는 것이고 요란을 떠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결코 반응할 수 없음을 믿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또 이것은 삶의 가장 사소한 영역에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일들에 대해 반응을 하며 오버하고 요란을 떨고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두 가지가 요소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기에 삶에서 오버하고 요란을 떨게 됩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아버지로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천사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선민이 삶에서 노후를 걱정하는 것은 오버하는 것이고 요란을 떠는 것 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생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전혀 불필요한 몸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선민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요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4장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토판에 그려서 남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다 깎아서 저울에 무게를 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삼등분하여 처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기근과 전염병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치다 바벨론 군대에 잡혀죽는 것이고, 세 번째는 포로로 붙잡혀간 이방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서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계속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선민들이 이방인과 같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선민을 두시고 일부러 그 주변을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나라들 틈에서 선민들이 차별화된 모습을 드러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추월하여 더 큰 죄악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들의 이러한 양상을 7절에서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요란함은 히브리어 '하마'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하몬입니다. 하마는 '큰 소리로 말하다, 동요하다, 으르렁 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를 합치면 실제 하는 일의 무게에 비해서 과장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즉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감탄을 한다든지 찬사를 한다든지 결심을 한다든지 놀란다든지 경악한다든지 그 일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크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요하다'라는 뜻에는 무서움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슬픔 분노 원망하는 기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으르렁거리다'의 뜻은 분노 억울함 시기 복수심 원망 등에 지나칠 정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대로 말해보자면 선민은 요란을 떨지 않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오버하지 않고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은 요란을 떠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심하게 요란을 떠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반응한다는 것인데 지나침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에스겔은 천국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때에 성령을 통해서 느낀 하나님에 대한 좋으심을 보석의 광채와 무지개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던 느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을 기업이자 몫으로 받은 자들이 선민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산 아래에서 꿈꾸던 모든 것을 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대한 일말의 미련도 없이 하늘로 떠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마음에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접하면 세상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반응일 뿐입니다. 또 그 좋으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가졌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요란을 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억울하다고 소리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천사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오버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는 죽음조차도 요란을 떨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만난 배 위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다 예수님을 깨웠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면서 핀잔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에스겔이 보석의 광채와 무지개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홀하고 좋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업과 몫이 되십니다. 이러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풍랑이 분다고 요란을 떠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전제로 한다면 삶에서 풍랑을 만났다고 해서 요란을 피우는 것은 다 오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 겁에 질렸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맥락대로 풀어보자면 “너희 왜 오버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출애굽 때를 생각해봅니다.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바야흐로 선민으로써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백삼십 년 동안 노예생활에 찌들어있던 이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일은 오버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해로 끌고 가심과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셔서 분노하여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선민의 입장에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화가 잔뜩 난 바로의 군대가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선민들은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들을 끌고 왔느냐며 모세에게 항의하고, 여기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았다며 후회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3~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오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0만 명의 선민들은 노예생활에 익숙한 오합지졸뿐이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던 이들의 입장에서는 두려워하고 동요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들에게 오버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이 벌어질 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하다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을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버하고 요란을 떨고 생쇼를 하며 살았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사업문제 건강문제 자녀문제 배우자문제 등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야 말로 오버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버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버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대표적인 예가 여호사밧의 일화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버를 했지만 다만 성전에 와서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성전에서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오버는 그만해라. 지금까지 했으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마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느끼게 되자 군대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적들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과의 싸움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기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민이 이방인과 차별화되기를 바라신 것은 바로 오버하지 않기였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안 좋은 일이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서로를 탓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오

늘 말씀에 비추어보자면 이 모든 행위가 오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한 오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주셨다고 믿으면서 신앙을 돌아볼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나치게 반응합니다. 사업 잘 되면 축복받았다고 부러워하고, 사업 안 되면 저주받았다고 흉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이 성소를 우상숭배로 더럽혔다는 것은 곧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앞선 10절에서는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아까워했고 아들이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아까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아버지가 아들을 우선적 현실로 여겼고, 아들이 아버지를 우선적 현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을 때에 천사가 제지하면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자식 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끊임없이 오버하고 요란을 떨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상번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아까워하고 첫 번째 현실로 느끼는 마음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을 아까워하는 동안에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에 대해 이방인과 똑같이 오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아까워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오버하는 것이고 요란 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상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아깝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여기지 않는다면 오버하기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엉엉 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선민의 입장에서보자면 "이게 웬 오버입니까?"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선민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세상일로 인해 울고불고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변화산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보고 세상을 망각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바라보며 오버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져야 할 자들이 우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웃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져야 될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고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불평불만을 할 수 없는 이유도 결국 오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몸이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텐데 두려워하며 오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괘씸하게 여겨지실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선택하신 선민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방인들보다도 더 오버하고 더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괘씸하셨는지 선민들을 한 번에 죽이시지도 않으시고 세 가지의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분이 가라앉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시고자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지면 베드로가 망각했고 예수님이 등지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울고불고 불안해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생난리를 피우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즉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 일로 인해서 오버하고 요란을 떠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무서울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입니다.

노후가 걱정이 되신다면 오버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건강이 안 좋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하는 것도 오버하는 것입니다. 설령 죽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갈 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무지개와 같고 보석의 광채로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천국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까마득하게 세상의 모든 일을 망각할 정도로 좋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느끼시고 세상에 대해 오버하는 것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반응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지면 육체에 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것입니다. 가장 큰 우주에서 가장 작은 티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부터 일하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발 무엇을 하겠다고 오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위대한 일이 있다고 여기는 것부터 오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갖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회를 잘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조차 오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버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동안 오버하고 요란 떠느라 힘든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 대해 오버하려는 원죄의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 바라보기를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공부할 때에도 어떤 때든지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창조성이 발휘되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기로 작정한 선민들이 마음에서 세상을 붙들고 있다면 다 오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버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과 가장 아까운 분으로 모셔 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이 세상 것을 아까워하든 마음이 다 죽고, 하나님을 첫 번째 현실로 제일 아까운 분으로 내 마음에 붙잡을 때 이 세상을 향하여 절대로 오버하지 않고 요란 떨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가 싸악 제거되고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제발 더 이상 오버하기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아까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만을 아까워하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진 자로써 이 세상 어떤 일에 대해서도 오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